



제2의 모태범을 꿈꾸며...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제41회 회장배 전국남녀 빙상경기대회 500m에 출전한 남자 초등학생들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승부=패’ 규정 폐지

프로야구 실행위원회 개정 일본식 승률제로 환원키로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부터 말 많았던 무승부 제도가 다시 바뀐다. 8개 구단 단장들로 구성된 프로야구 실행위원회(옛 명칭 단장모임)는 4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무승부를 패배로 규정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승수를 승수와 패수의 합으로 나누는 일본식 승률제로 환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무승부를 많이 거둔 팀이 승률 계산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사라졌다. ‘무승부=패배’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현상 감독들의 의견을 단장들이 받아들여면서 대외 요구가 최종 확정됐다. 대회 요

강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와 상관 없이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실행위원회는 또 내년 시즌부터 경기 수를 현재 팀당 133경기에서 140경기로 늘리고 비활동기간(12월~다음해 1월 중순) 훈련에 따른 비관 이 거세짐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구단 합동 훈련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실행위원회는 내년부터 경기수를 팀당 140경기로 늘리되 제9구단 창단시 경기 일정과 경기수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게임 수가 증가하면 1군 엔트리도 늘어 현재 26명 등록·25명 출전에서 1명 많은 27명 등록·26명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피드업’(경기시간축전)을 위해 사라졌던 클리닝타임이 부활해 5회말 공격 종료 후 4분간 구장을 정리하기로 했고 포스트시즌 연장전은 현재 12회에서 15회로 늘렸다. /연합뉴스

‘무릎 부상’ 박주영 수술대신 재활 치료

무릎을 다쳐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공격수 박주영(26·AS모나코)이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수술은 피하게 됐다. 박주영의 에이전트사인 템플러스스포츠는 4일 “박주영이 모나코 구단과 상의해 수술은 하지 않고 재활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영은 지난달 23일 FC소쇼와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 홈 경기(2-1 승)에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뽑고 동료와 기쁨을 나누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무릎뼈를 덮은 연골 일부가 벗겨져 나가면서 뼈가 드러나 통증이 생겼다.

이후 일시 귀국해 정밀 검사를 받은 박주영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사진과 의사 소견서를 갖고 1일 다시 프랑스로 건너가 구단 의문진과 치료 방법을 상의했다. 무릎 연골 부상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나아질 수 있지만, 재발 우려가 있어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그렇지만 수술하면 치료와 재활에 수개월이 걸린다. 박주영은 현재 모나코의 훈련캠프에 합류했지만, 훈련은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근력 보강 운동 등을 하면서 그라운드 복귀를 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풍운아’ 고종수 지도자로 제2축구인생

수원 삼성 U-18세 팀 코치 발탁

금호고 출신 전 국가대표 고종수(33)가 지도자로 그라운드에 복귀해 제2의 축구인생을 시작한다.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은 4일 “고종수를 수원의 U-18세 팀인 매단고등학교 축구부의 코치로 영입했다”며 “구단의 U-12 팀을 이끌었던 정성훈(43) 감독이 매단고의 새로운 사령탑이 되면서 고종수를 코치로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18살의 나이로 수원에 입단해 데뷔 첫해에 1골 4도움을 기록하며 ‘양광 테러리’라는 별명을 얻었던 고종수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하고 그해 K-

리그 MVP를 차지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수원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해 거대한 고종수는 2001년에는 10골 6도움의 맹위를 떨치며 최고의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지만 무릎 부상으로 지난해 슬럼프에 빠졌고, 2008년 대전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그라운드 복귀를 꿈꾸던 고종수는 지난해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땀고, 수원의 배려로 올해부터 매단고 코치로 지도자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K리그 새 드라마 쓴다

동계훈련 필승 무대로 中·日 선택... 베스트 전력 꾸리기 돌입

봄날을 기다리는 K-리그 전사들의 담금질이 시작됐다. 2011년 프로축구 K-리그 정상을 노리는 16개 구단이 본격적인 동계훈련 체제에 돌입했다. 초대감독과 신임감독 체제로 2011년을 맞은 광주 FC와 전남 드래곤즈도 4일 새해 첫 합동훈련과 워크숍을 가졌다. 오는 3월5일 신생팀으로 K리그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광주 FC는 4일 새해 첫 호흡을 맞췄다. 광주는 3일 골키퍼 박호진, 미드필더 김흥일 등 노련한 6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보

강을 한데 이어 4일 금호고 체육관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기초 체력 훈련 등을 하며 새해 첫 일정을 소화했다. 최만희 감독을 필두로 한 선수단, 프런트가 함께한 오찬으로 시무식을 대신한 광주는 8일 강진에서 캠프를 옮겨 24일까지 전지훈련을 계속한다. 광주는 강진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2주가량 중국 쿤밍에 캠프를 차리고 베스트 전력을 꾸리게 된다. 용병선수와 스트라이커 영입을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 드래곤즈는 워크숍을 통해 2011년을

맞이했다. 전남은 3·4일 남해 스포츠 파크에서 정해성 신임 감독 및 코칭스태프와 구단 프런트가 참가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2011시즌의 선전을 다짐했다. 수원 삼성을 떠나 전남에 새동지를 틀게 된 골키퍼 이운재를 비롯한 전남 선수단은 5일 광양에 소집돼 2011시즌의 항해를 시작한다. 전남은 일본을 필승무대로 선택했다. 내달 6일 일본으로 건너가는 전남은 20일까지 구마모토 등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게 된다. 광주·전남을 제외한 14개 팀들의 움직임

도 분주하다. 울산 현대는 지난 2일 광포로 선수단을 파견해 가장 먼저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황선홍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한 포항 스틸러스와 강원 FC, 수원 삼성은 3일 훈련을 시작했다. 4일 대구 FC와 경남 FC가 본격적인 체력 훈련에 나섰다. 6일에는 대전 시티즌이 전지훈련을 위해 중국 광저우로 향한다. 지난해 우승컵을 놓고 격돌했던 디펜딩 챔피언 FC 서울과 준우승팀 제주 유나이티드는 7일 목포에 들어간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는 7일과 11일 각각 광과 브라질에서의 겨울나기에 들어가고, 성남 일화화와 부산 아이파크는 13일과 15일 일본에 훈련 캠프를 마련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울路 Go Go~
KTX타고가는 신나는 겨울여행

www.4100tour.com

서울로 명소탐방 시티투어 기차여행(1박 2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 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1일차	11:20	남산 케이블카 탑승(편도 10분소요)-남산N타워 전망대 및 서울성곽, 봉수대 등 관람(남산N타워 전망대 요금별도 8,000원)	자유식
	11:50	청계천 산책(청계광장-모교교-광동교-광교교간 / 약 20분)	
	12:30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13:50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 / 청와대 뒷길 경유)	
	14:00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강명전-교대전 / 공해설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15:30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16:40	한강 유람선 탑승(상류-동작대교-하류-당산철교 / 1시간소요)	
	20:00	숙소 체크인 및 자유시간	
	07:30	기상 및 조식 후 용산으로 이동, 전쟁기념관 관람	
	10:00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 및 국립중앙박물관 이동	
12:00	인사동 맛집에서 자유식	자유식	
13:00	동대문시장 둘러보기		
14:30	동대문시장 둘러보기		
16:00	남산 한옥마을로 이동 및 관람		
KTX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KTX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요금안내(1박 2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목포 - 용산 요금안내
월~목	136,000 129,000	140,000 133,000
금/토/일/공휴일	153,000 146,000	157,000 150,000
월~목	131,000 125,000	135,000 128,000
금/토/일/공휴일	148,000 142,000	152,000 145,000
월~목	128,000 121,000	131,000 125,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148,000 142,000
월~목	128,000 121,000	131,000 125,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148,000 142,000

서울로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목포 - 용산 요금안내
월~목	86,000 79,000	89,000 82,000
금/토/일/공휴일	88,000 81,000	91,000 84,000
월~목	81,000 75,000	85,000 78,000
금/토/일/공휴일	83,000 77,000	87,000 80,000
월~목	78,000 71,000	81,000 74,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83,000 76,000
월~목	78,000 71,000	81,000 74,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83,000 76,000

태백 눈꽃축제 (1월 22일~23일 무박 2일)

날자	교통	시간	일정
1월 22일 (토)	무궁화호	22:00~06:00	목포역출발-임성리역-일로역-동탄역-무안역-함평역-나주역-광주승정역-태백역도착
			(등반팀) 태백역-유일사일구도착-자유조식-태백산 산행(유일사-담골코스)-민족의역사 태백산 눈꽃산행 -현재단에서 바라보는 동해
1월 23일 (일)	무궁화호	14:00~22:00	(편관팀) 태백역-용연동굴이동 용연동굴관람-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 동굴-중유석등 신비한 동굴세계 용연동굴출발-담골관장도착-자유조식
			석탄박물관, 단군성전, 눈꽃 축제장-눈썰매(개인지출)등 자유시간
			담골관장 제 2주차장 출발-태백역이동 태백역 출발(열차내 석식 도시락 제공) 광주승정역-나주역-함평역-무안역-동탄역-일로역-임성리-목포역도착

유뉴남해여행사
 문의전화 061-287-4100-4200 / 284-1135 / 011-632-1132